

EduNEXT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 방안

일시 | 2018. 8. 27(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박경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회교육희망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회교육희망포럼

공동대표 안민석·도종환 **연구책임의원** 박경미
김민기·김병욱·김한정·노웅래·박주민·설 훈·손혜원·
신동근·오영훈·유성엽·유은혜·윤소하·이동섭·이종걸·
이해찬·전재수·조승래 국회의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프로그램

시 간	행 사 내 용	
10:00~10:10 (10분)	개회 및 소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덕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10:10~10:30 (20분)	축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 안민석 국회교육희망포럼 대표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10:30~10:55 (25분)	주제발표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발전 방안 - 임철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0:55~11:20 (25분)	주제발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 - 채재은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1:20~12:20 (60분)	지정토론	[좌 장] 권선국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승환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최익제 (서울대학교대학원 외교학전공 석사과정)
		이해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
12:20~12:30 (10분)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세부일정은 행사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차례

- 인사말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덕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 축 사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
안민석 국회교육희망포럼 대표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주제발표

- 발표 1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발전 방안
임철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
- 발표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
채재은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38

지정토론

[좌장] 권선국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토론 1 김승환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64
- 토론 2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68
- 토론 3 최익제 (서울대학교 외교학전공 석사과정) 71
- 토론 4 이해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 76

인사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경미입니다.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여름도 어느덧 저물어갑니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학교도, 후반기를 준비하는 국회도, 반환점을 돌아 또 다른 출발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요즘입니다. 열네 번째 EduNext 토론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 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대학과 고등교육의 내일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핵심으로서 ‘인재’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깊이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일자리와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생활양식 또한 지금과는 사뭇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은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혁신과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하며 인재 양성과 학문 연구 등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온 고등교육은 미래 사회를 맞이하며 이제 또 다른 도전과 기회 앞에 놓여있습니다.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변화된 생애주기에 맞추어 평생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며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고등교육의 과제는 이제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정과 교수방법 등의 혁신은 물론, 더 많은 고등교육 기회의 보장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고등교육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미래 사회를 위한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논의해보아야 합니다.

인사말

오늘 세미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고등교육이 해결해나가야 할 다양한 과제들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국내외 고등교육 기관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혁신 사례들과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고등교육 발전방향을 제안해주신 두 분의 발제와 고등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토론자 여러분의 토론을 통해 실효적이고 의미 있는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많이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모인 소중한 고견들을 토대로 국회와 정부 또한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미나를 위해 노고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경 미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오덕성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의 열기는 식어가고 가을 문턱이 성큼 다가오는 오늘, 국회의원 박경미 의원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회 교육희망포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EduNext 14.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세미나를

함께 기획해 주신 박경미 국회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발표자, 토론자 분들과 참석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들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 학력인구의 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고등교육의 수요와 일자리를 전망하는 등 미래사회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가치의 창출과 인재의 양성이라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교육내용과 성과를 포함한 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30년까지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 보장과 질 제고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면서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를 제시할 필요성 또한 증대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와 같은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의 고등교육이 어떻게 변화,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장으로서 이 자리가 우리나라 미래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단초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오 덕 성

EduNEXT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 방안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 방안〉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노고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박경미 의원님을 비롯하여 국회교육희망포럼 의원님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초연결·초지능 사회로 설명되는 4차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산업구조는 물론 사회 전반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자리와 생활양식의 변화는 특히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핵심으로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체제의 혁신을 필요로 합니다.

70%에 육박하는 유례없는 대학 진학률과 함께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일자리 구조가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질적 성장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의 혁신 방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교육 환경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기회로 전환하고, 미래 사회를 위한 핵심 역량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대학 및 평생교육 체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의미 있는 방안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우리가 살아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고등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축사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 방안〉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노고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박경미 의원님을 비롯하여 국회교육희망포럼 의원님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은 역사상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세상은 무서울 만큼 급속도로 뒤바뀌고 있으며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유망 직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미래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통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맞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래와의 갑작스런 충돌로 개인과 집단의 적응이 어려워지는 ‘미래충격(future shock)’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단순노동은 기계로 대체되고, 고도 지능이 필요한 분야는 인공지능에 의해 교체될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창의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마련된 세미나는 앞으로 뒤바뀔 교육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고 미래사회에 걸맞은 창의적인 인재상 양성 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참석하신 많은 분들의 전문적인 고견을 기대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리를 빛내 주신 발제자, 토론자 및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하며, 이번 세미나가 급격히 다가올 ‘미래충격’을 대비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국회교육위원장
이 찬 열

축사



안녕하세요,

국회교육희망포럼 대표 안민석 의원입니다.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미래사회에서 고등교육의 혁신 방향에 대한 많은 고민과 지혜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제문에 나온 학문 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학습 제공,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등 고등교육의 비전에 매우 공감합니다. 또한 함께 제시해 주신 발전방안과 추진전략을 향후 구체화 하는데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고등교육체제를 마련하고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높여 대학의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대학이 교육과 연구 등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장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고등교육 혁신 방안에 대해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 패널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국회교육희망포럼 대표
안민석

축사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14번째 EduNext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경미 의원님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회교육희망포럼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유엔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두가 해결해야 할 17개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였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육부와 함께 17개 목표 중 교육 목표인 SDG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의 국내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9개의 국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SDG4-교육 2030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특히 양질의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SDG 4.3과 관련된 중요한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산업화와 지식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여 왔으나,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이르러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큰 도전을 안팎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1억 명이었던 세계 고등교육 취학인구가 2015년 2억 1천 3백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취학을 역시 19%에서 36%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유럽과 북미의 고소득국가의 고등교육 취학률이 75%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를 살피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추구할 방향은 4차 산업혁명 대비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국제화라고 생각됩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과 학문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조류에 동참하려면 더 활발한 고등교육 교류와 인정이 필요합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혁신적인 고등교육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참신한 정책 제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7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 광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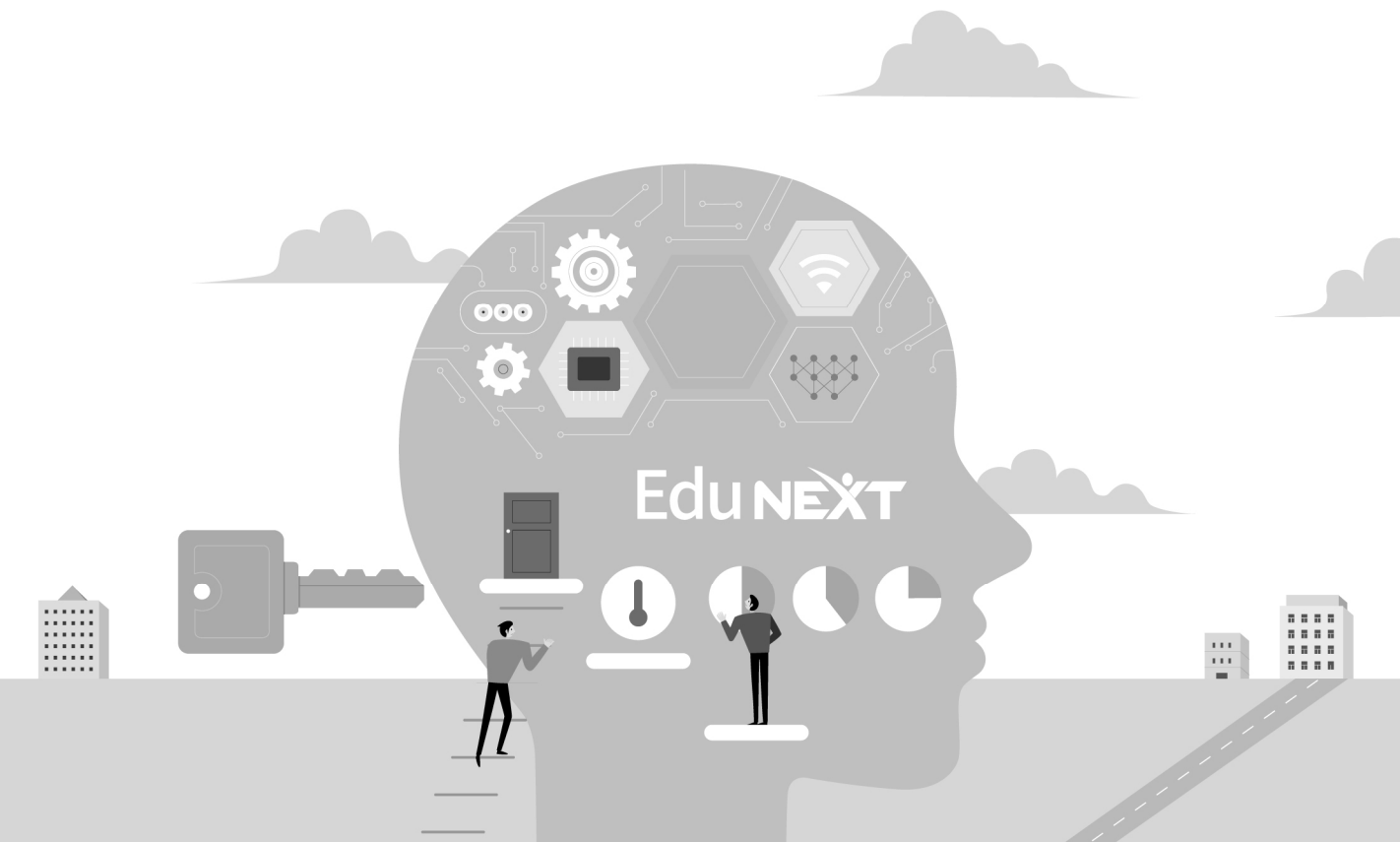
주제발표

발표 1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발전 방안

임철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발표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

채재은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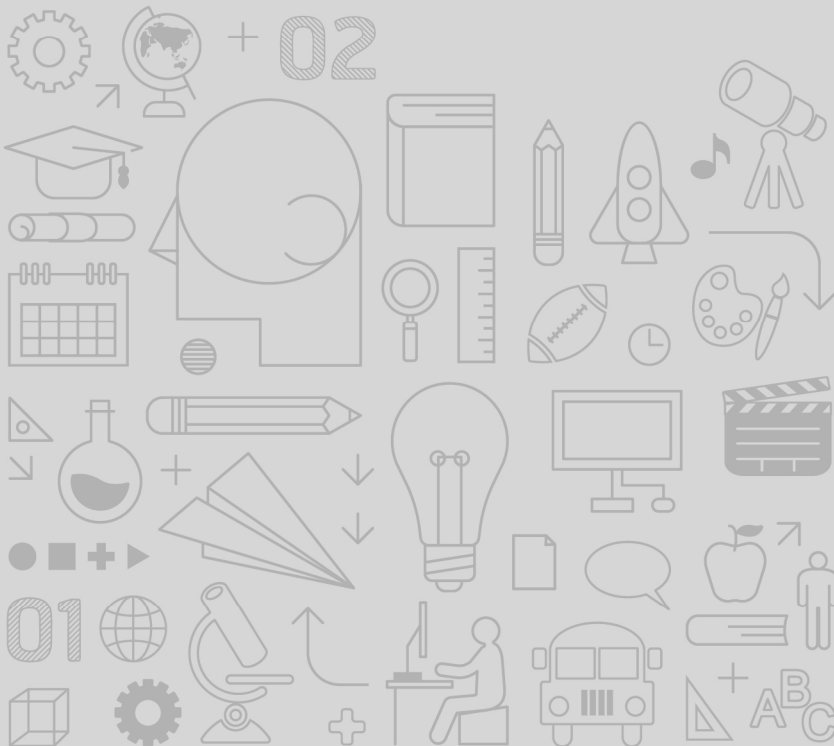
주제발표 1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발전 방안

임철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duNEXT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 방안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발전방안

2018. 08.27.

임철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 내용의 구성과 맥락*

-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특성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에 대한 분석
 - ✓ 미래사회의 특성과 필요 역량 확인
 - ✓ 국내 대학이 미래사회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필요성
-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 혁신의 필요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 ✓ 고등교육 기관, 교육과정의 혁신
 - ✓ 고등교육 교수방법, 기술의 혁신
- **한국의 향후 고등교육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과 실천 가능한 청사진 제시**
 - ✓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 및 청사진
 - ✓ 미래 고등교육의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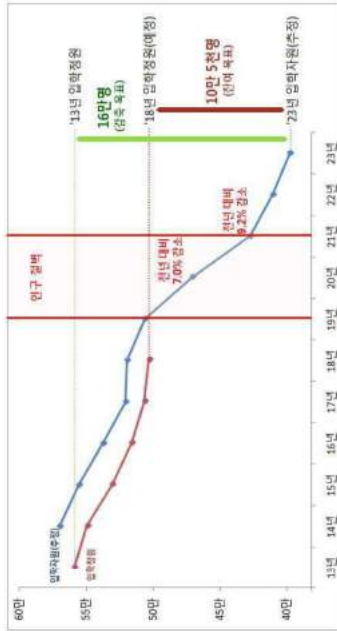
* 본 발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발주에 의한 임철일, 송해덕, 김지현(2018)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미래 고등교육 발전 방안

- 미래 사회의 요구와 고등교육의 대응
- 비전
- 비전에 따른 발전방안

미래사회의 특성

- ✓ 국내 환경 변화
 - 대학생 학령인구 급감
 - 성인학습자 및 평생학습 참여율 증가
 - 대학 구조개혁 정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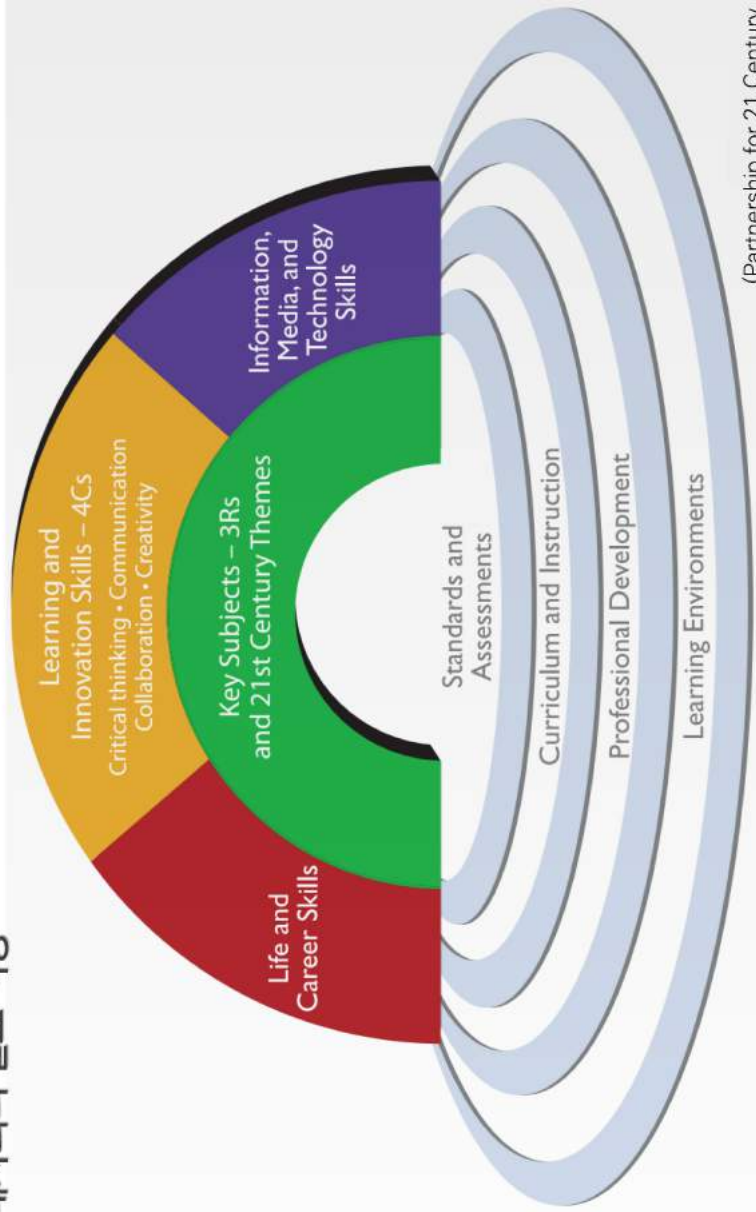
연도별 입학정원 추이(교육부, 2017b)

- ✓ 국제 환경 변화
 - 4차 산업혁명 도래
 - 고등교육체제의 개방성 및 국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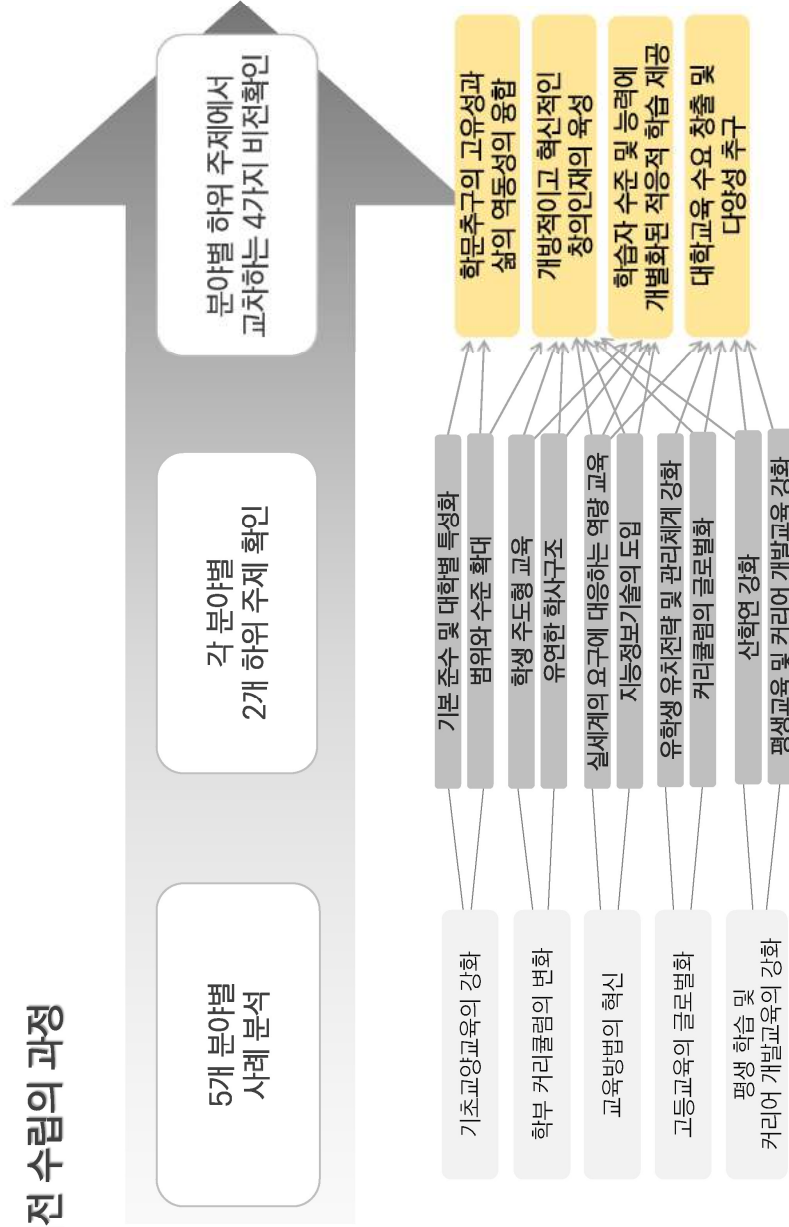
직업변화의 4가지 트렌드(미래창조과학부, 2017)

미래사회의 필요 역량



(Partnership for 21 Century Learning, 2015)⁵

비전 수립의 과정



■ 미래 한국 고등교육의 비전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미래의 한국 대학은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을 융합한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미래의 한국 대학은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미래의 한국 대학은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 된 적응적 학습을 제공한다.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미래의 한국 대학은 새로운 대학교육 수요를 창출하고 학습자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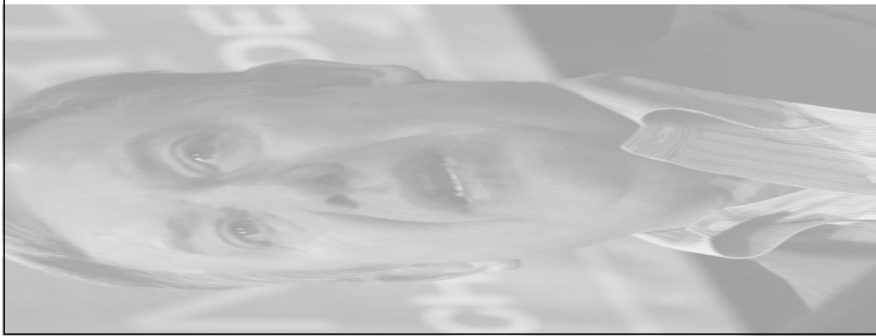
국내외 고등교육의 혁신 동향 및 사례 분석

- 기초교양교육의 변화
- 학부 커리큘럼 중심의 이동
- 고등교육 수준별 교육방법 혁신
- 고등교육의 글로벌화 강화
- 커리어 개발 강화

고등교육 혁신의 ICON: Arizona State University



03



**“Measured not by whom it excludes,
but by whom it includes and how they succeed.”**

10

사례 1. 기초교양교육의 변화

• 예일대학: 배분필수 교양과정 이수규정표

1학년 말까지 8학점 이수 완료	2학년 말까지 16학점 이수 완료	3학년 말까지 26학점 이수 완료	4학년 말까지 36학점 이수 완료 (졸업이수학점) 인문학 및 예술
QR: 양적 사고(Quantitative Reasoning)			
WR: 글쓰기(Writing)			
L: 외국어(Foreign Language)			
	인문학 및 예술	자연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양적사고	양적사고
	사회과학	글쓰기	글쓰기
	양적사고	양적사고	양적사고
QR, WR, L 중 택1	글쓰기	글쓰기	글쓰기
QR, WR, L 중 택1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
본과학문 과목을
균등하게 누적

↓
기초능력
필수과목을
균등하게 누적

■ 사례 2. 학부 커리큘럼 중심의 이동

• NYU: The Gallatin school of individualized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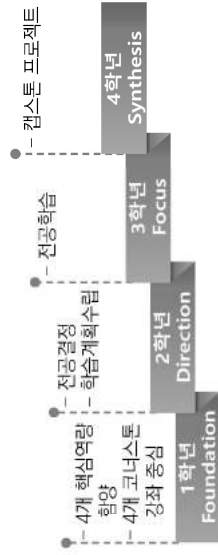


12

사례 3. 고등교육 교육방법 혁신

• 대학기관의 혁신: 미네르바 대학

✓ 소프트웨어 혁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활동



✓ 하드웨어 혁신: 주요도시 건물 임대, 주변 인프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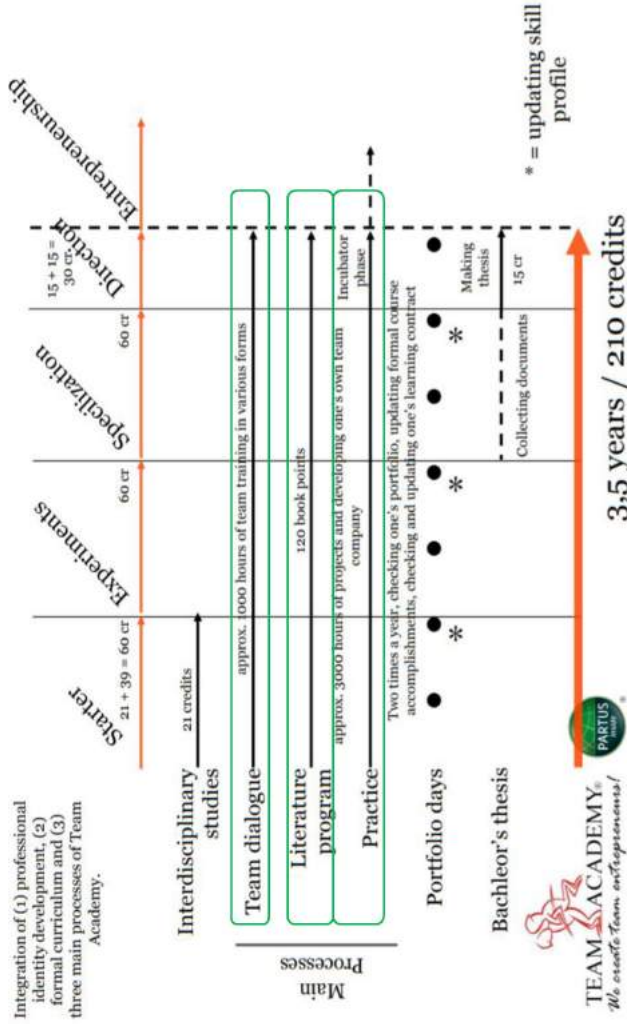


- 플립드 러닝 기반
- 토론, 논쟁, 협업에 초점
- 20명 미만의 소규모 세미나
- Active Learning Plat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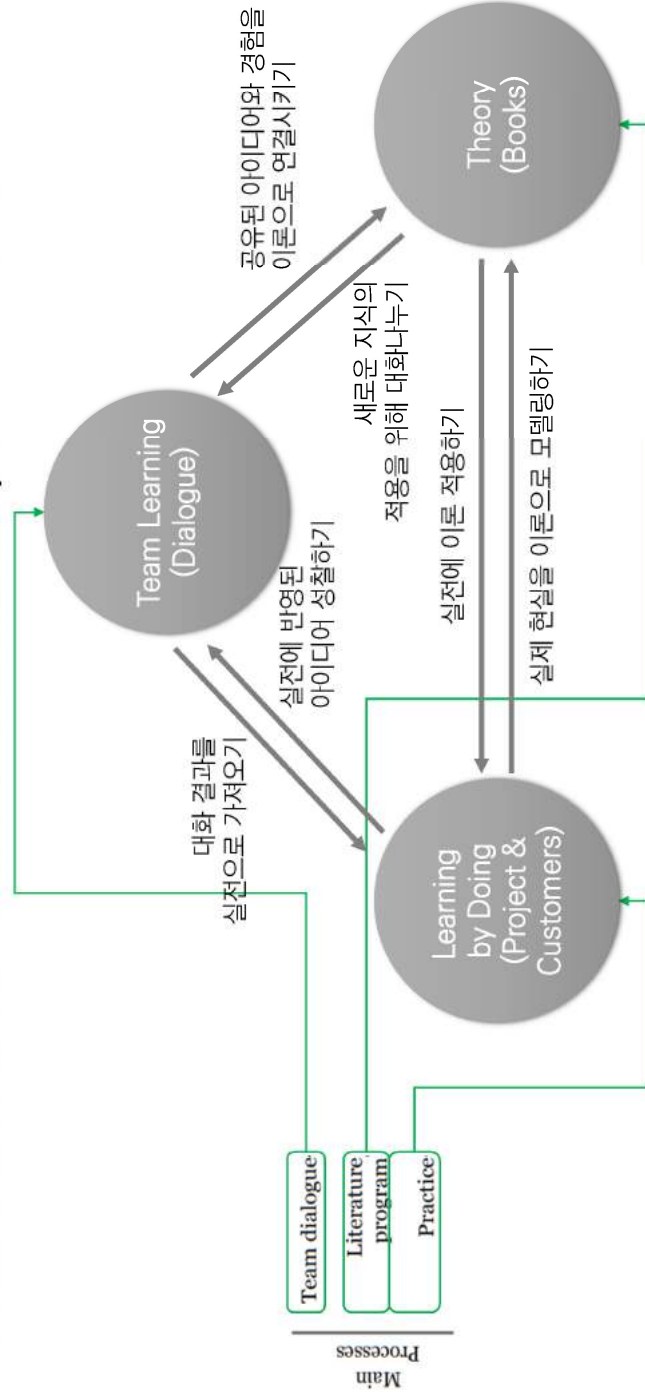


사례 3. 고등교육 교육방법 혁신

- 교육과정의 혁신: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Team Academy의 교육과정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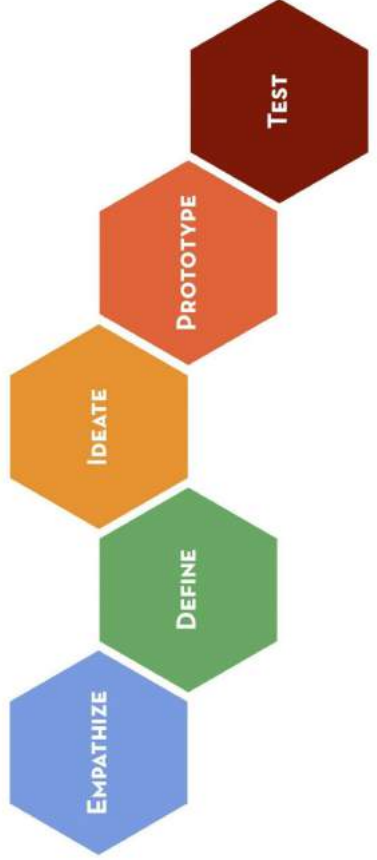
■ 사례 3. 고등교육 교육방법 혁신
• 교육과정의 혁신: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Team Academy의 교육과정 로드맵



■ 사례 3. 고등교육 교육방법 혁신

• 교수학습방법의 혁신: 스탠포드 d-school

✓ 다양한 사람들 간의 협업, 실제 프로젝트의 해결을 강조하는 디자인 씽킹을 활용한 강좌 및 연관된 학위과정 운영



- ✓ Design Impact
- ✓ Learning, Design & Technology
- ✓ Human Computer Interaction
- ✓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 ✓ Symbolic Systems
- ✓ Mechanical Engineering
- ✓ Architectural Design

사례 3. 고등교육 교육방법 혁신

- EdTech 혁신: 노스웨스턴 대학 Canvas LMS

✓ 다양한 학습활동을 설계 및 지원할 수 있는 LMS

The image displays three screenshots of Canvas LMS analytics tools:

- Discussion Analytics:** A word cloud visualization showing terms like 'Ken', 'Jenniffer', 'Andy', 'Green', 'SAS', 'Randy', 'David', 'Fran', 'Ron', 'Banks', 'member', 'team', 'fiber optic', 'MRS. Fields', 'people', 'work environment', 'department', 'headgroup', 'member', 'work', 'SAS', 'member', 'team', 'fiber optic', 'MRS. Fields', 'people', 'work environment', 'department', 'headgroup', 'member', 'work'.
- Nebula:** A network graph visualization showing connections between nodes. Nodes are labeled with names like 'Ken', 'Jenniffer', 'Andy', 'Green', 'SAS', 'Randy', 'David', 'Fran', 'Ron', 'Banks', 'member', 'team', 'fiber optic', 'MRS. Fields', 'people', 'work environment', 'department', 'headgroup', 'member', 'work'. A legend on the left lists categories like 'Discussion Topics', 'User Activity', 'User With Most Interactions', 'Most Interactions', 'Most Active Topics', 'Most Active Topics', 'Most Active Topics', 'Most Active Topics'.
- Arc:** A dashboard for 'Psychology 101 - Elements of Psychol...' showing various analytics and navigation options. The dashboard includes a navigation menu with items like 'Announcements', 'Discussions', 'Pages', 'Subsites', 'Assignments', 'Quizzes', 'Examinations', and 'Surveys'. The main content area shows a video player and other course materials.

■ 사례 4. 고등교육 글로벌화 강화

• 도쿄대학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젝트



호주국립대학 교양학부
'국제연구' 과정 공동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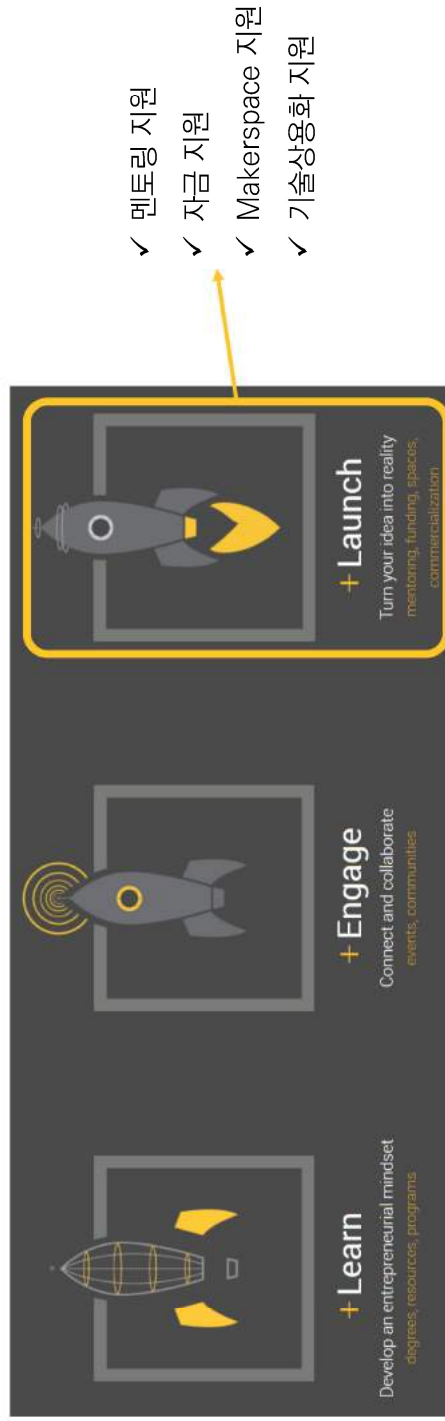
미국 MIT & 민간기업과 연계
대학원생 및 성인학습을 위한 시스템디자인 강의 개설

스웨덴왕립공과대학, 스톡홀름대학
의학, 공학,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교류 협정

■ 사례 5. 커리어 개발 강화

• 기업가 정신 및 창업 지원: ASU Entrepreneurship + Innovation

✓ Learn - Engage - Launch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모델 설정



■ 사례 5. 커리어 개발 강좌

- 커리어 개발 교육의 접근성 확보: ASU

✓기업 맞춤형 온라인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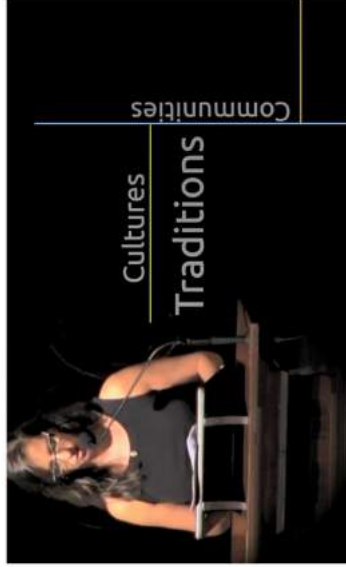
✓성인 학습자의 직무역량 강화 온라인 강좌

<p>Professional Skills Mastery - Verbal Communication</p> <p>In this bundle you'll learn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communicating in your professional and personal life. Learn the skills you need to communicate effectively in different approaches to communication.</p> <p>Self-paced \$500</p>	<p>Professional Skills Mastery - Written Communication</p> <p>In this bundle you'll learn the core skills of written communication, which makes you a more effective communicator in your work, school, and personal life. You'll learn how to write clearly, concisely, and effectively.</p> <p>Self-paced \$500</p>	<p>Project Management Certificate</p> <p>Earn a project management certificate by taking the bundle of 12 professional courses. This certificate seems self-proclaimed, but it's a valuable skill that can help you work in your existing career and prepare...</p> <p>Self-paced \$3,000</p>	<p>Delivering Service Excellence</p> <p>Learn to identify important moments of truth when working with customers, and how to profit from service recovery.</p> <p>Self-paced \$299</p>
--	--	--	---

미래 고등교육 발전 방안

- 비전
- 비전에 따른 발전방안
- 청사진: 발전방안의 추진전략 타당성 검토

비전 1 :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 하버드 대학 '새교양교육과정 (New General Education) '



■ 비전 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 인재의 육성

• Tulane University(Tulane University)의 Changemaker Institute (CI)

- CI: 사회적 혁신 활동 및 사회적 문제해결 촉진
- CI+: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



CI 사례: Trash to Treasure

tulane 대학의 학생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재활용 및 판매 수익금을 벤처 지원기금으로 활용

CI+ 사례: SHRI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하여 물 여과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 인도의 농촌지역 위생문제를 해결

비전 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 조지아 주립 대학(Georgia State University) 외 6개 대학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의 자금 지원 및 APLU (Association of Public and LAND-GRANT Universities)의 Personalized Learning Consortium에서 프로젝트 운영

-학생의 성공 향상을 위하여 적응적 학습 플랫폼의 적용 및 평가 연구 프로젝트 진행

APLU Announces Awards for Seven Public Research Universities to Accelerate Use of Adaptive Courseware to Improve Undergraduate Education

JULY 14, 2016



<http://www.aplu.org/news-and-media/News/aplu-selects-seven-public-research-universities-for-grant-to-accelerate-use-of-adaptive-courseware-to-improve-undergraduate-education>

비전 4.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애리조나 주립대학(Arizona State University)의 EdPlus

-Through collaboration and innovation, EdPlus at ASU is committed to **expanding access to higher education**.



교육기회의 확대

- ASU Online: 140개 이상의 학부 및 대학원 과정
- Continuing + Professional Education: 커리어 및 직무역량 강화

새로운 학습경로

- Global Freshman Academy
- Starbucks College Achievement Plan

학습 모델 효과성 연구

- The Action Lab

EdTech 적용

- Pitch: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위한 instant message platform
- Me3: 흥미, 적성, 전공 기반의 진로 탐색 app

비전에 따른 발전방안 및 추진전략

비전	학문추구의 고유성과 삶의 역동성의 융합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의 육성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차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대학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11개 발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대학교육의 핵심 능력 및 특화된 능력의 형성 ▪ 1-2. 기초교양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확대 ▪ 1-3. 학문과 삶의 연계 및 착각적 미래시민의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다양한 성격의 전공과정개발과 운영 ▪ 2-2. 학습자중심, 자기주도적 학습의 실현 ▪ 2-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젝트 습득 및 활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 촉진 ▪ 3-2. 적응적 학습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 대학 최적의 유학생 공동체 구성 및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 지원 ▪ 4-2. 지역사회 경계를 넘어서는 대학 국제화 ▪ 4-3. 커리어 역량 강화
27개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1.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 -1-1-2.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1-2-1.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 교육 강화 -1-2-2.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수 기초교양교육프로그램 운영 -1-3-1.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육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1-3-2. 대학 밖의 삶의 주제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1.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 -2-1-2.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 제공 -2-2-1.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 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점 인정 -2-2-2.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2-3-1.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젝트 습득 지원 -2-3-2. 전공 맞춤형 학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 -2-3-3.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1.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 -3-1-2.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오픈러닝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 -3-1-3.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화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3-2-1.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 -3-2-2.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 -3-2-3.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1.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 -4-1-2.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4-2-1.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치 전략 -4-2-2. 시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 -4-2-3.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4-3-1.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내실화 -4-3-2.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4-3-3.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청사진: 추진 전략의 타당성 검토

- 연구참여자: 총장 및 보직교수 16명
(보직경력 평균: 8년 7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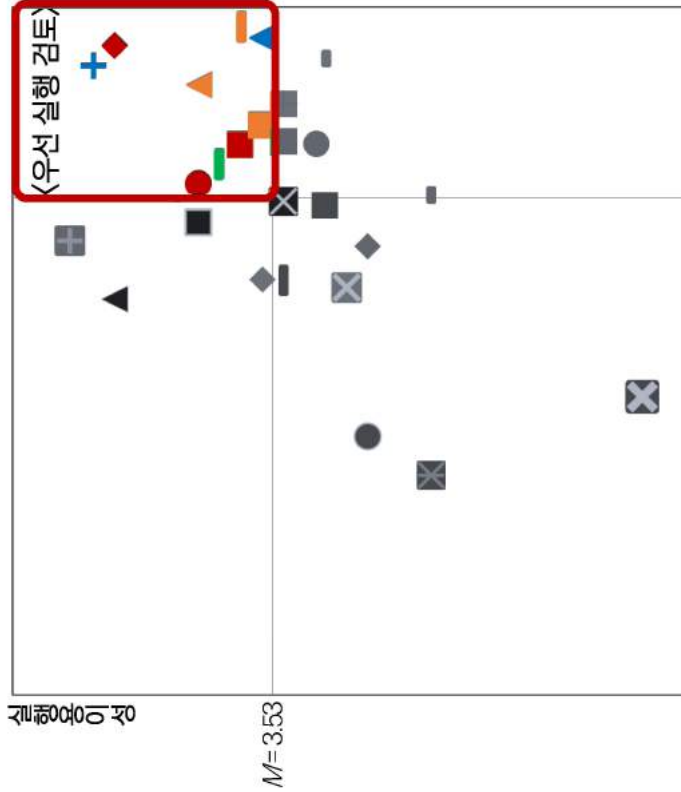
대학특성		인원
소재지	수도권	9
	지방	7
규모	대형	11
	중소형	5
설립유형	국공립	3
	사립	13
총합		16

• 타당성 지표

- ✓ 효과성: 각 추진전략별 교육적 효과성?
- ✓ 실행용이성: 4년 이내에 실행할 수 있는가?

실행용이성	효과성
<p>〈실행 검토〉</p> <p>효과성 낮음, 실행용이성 높음</p>	<p>〈우선 실행 검토〉</p> <p>효과성, 실행용이성 모두 높음</p>
<p>〈실행 검토 3순위〉</p> <p>효과성 낮음, 실행용이성 낮음</p>	<p>〈실행 검토〉</p> <p>효과성 높음, 실행용이성 낮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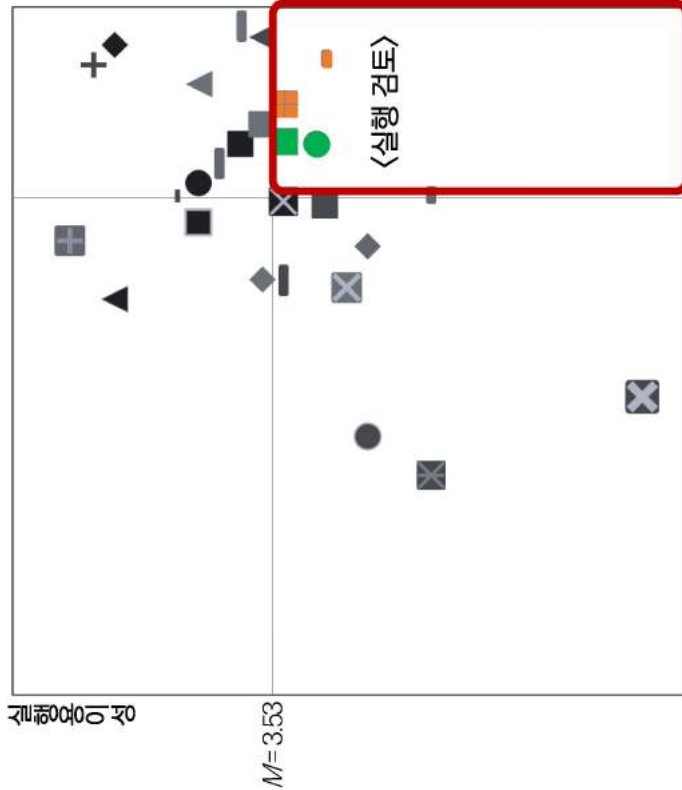
청사진: 추진 전략의 타당성 검토결과



- **비전1** 학문추구의 고수성과 삶의 여동성 운영
- ◆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양과정의 개설과 내실 있는 운영
- 특화된 능력 형성을 위한 융합형 교양과정 트랙의 개발 및 운영
- 대학 밖의 삶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의 시행
- **비전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양성
- 학생주도적 프로젝트수행, 연구과제수행, 실습 등의 여건 제공 및 교과 학습 인정
- 전공 및 문제에 적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습득 지원
- ▲ 전공 맞춤형 현장 및 사회 문제해결 경험 기회 마련
- **비전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 기초교과의 적응적 학습 지원을 위한 적응적 학습플랫폼 운영
- **비전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원)과정 이수 및 진로지도
- +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내실화

*효과성 최솟값 3.00, 최댓값 4.44 / 실행용이성 최솟값 2.44, 최댓값 4.13
*낮은 평점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비교임

청사진: 추진 전략의 타당성 검토결과



비전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하는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
- 자유로운 전공 선택 및 이수 기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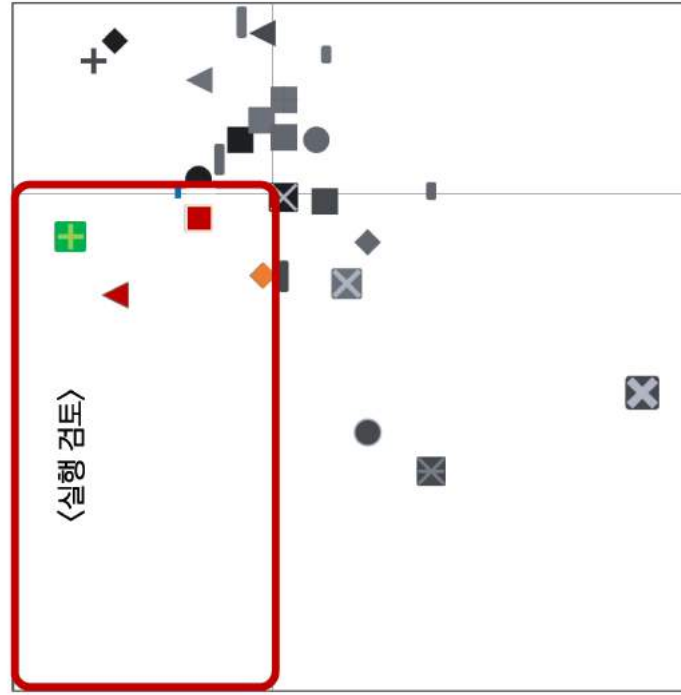
비전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 교수 및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의 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운영의 내실화
-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

*효과성 최솟값 3.00, 최댓값 4.44 / **실행용이성** 최솟값 2.44, 최댓값 4.13

*'낮음'은 평균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비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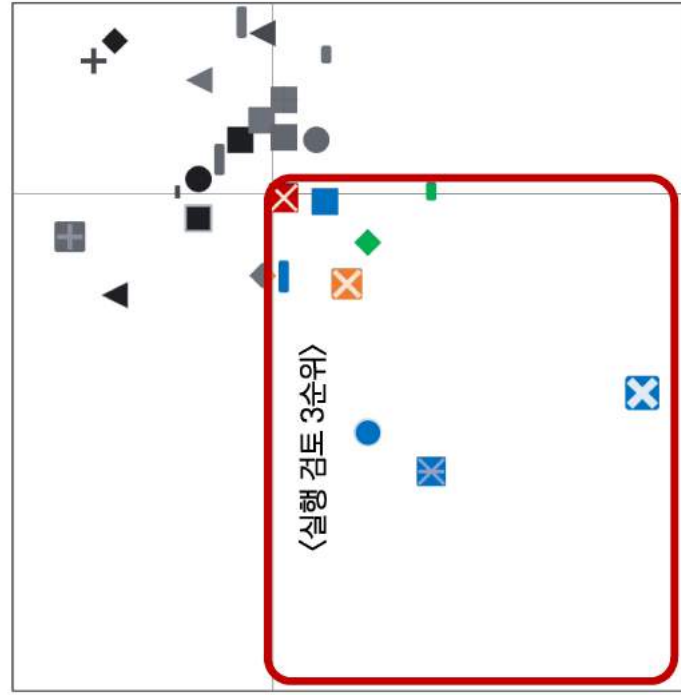
청사진: 추진 전략의 타당성 검토결과



- 비전1. 학문추구의 고상성과 삶의 여동성 융합
 - ▲ 수강학생 수준의 확인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신입생교육 강화
 - 다양한 사회의 변화/직업의 변화를 염두에 둔 기초교양교과목 개발과 이수체계 수립
- 비전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 ◆ 다양한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의 교육적 경험, 성과 확인
- 비전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 비교과 프로그램, MOOC 강좌 등 다양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
- 비전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기업 맞춤형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최솟값 3.00, 최댓값 4.44 / 실행용이성 최솟값 2.44, 최댓값 4.13
*낮은 평점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비교임

청사진: 추진전략의 타당성 검토결과



M=3.89

효과성

비전1. 학문추구의 고수성과 삶의 여동성 융합

❌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우등 기초양교육프로그램 운영

비전2.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인재 육성

❌ 혁신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비전3. 학습자 수준 및 능력에 개별화된 적응적 학습 제공

— 학습분석 및 인공지능 기반의 e-adviser 구축

◆ 대학 및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실증 연구 수행

비전4. 대학 교육 수요 창출 및 다양성 추구

■ 우수하고 개별 대학에 최적화된 유학생의 확보

— 근로자 및 구직자의 커리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개발 운영

⊠ 사이버대학을 통한 글로벌 교육네트워크 확립

⊠ 해외 국내캠퍼스 설립 및 국내 해외캠퍼스 유지 전략

*효과성 최솟값 3.00, 최댓값 4.44 / **실행가능성** 최솟값 2.44, 최댓값 4.13

*낮은 평점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비교임

31

제언

■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의
중장기적 고등교육 연구 수행



각 대학별 중장기적
혁신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혁신비전 및 추진전략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내 기관 설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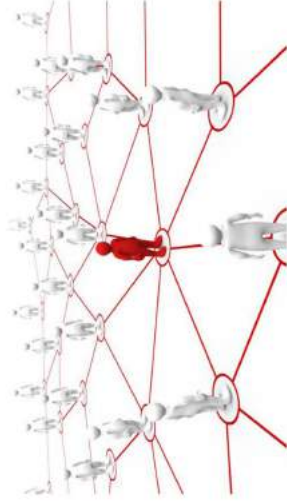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강화

■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제언



대학별 혁신을 촉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운영 및 평가지표 개발



고등교육 혁신과 미래 대비를 위한
대학 간 연계 강화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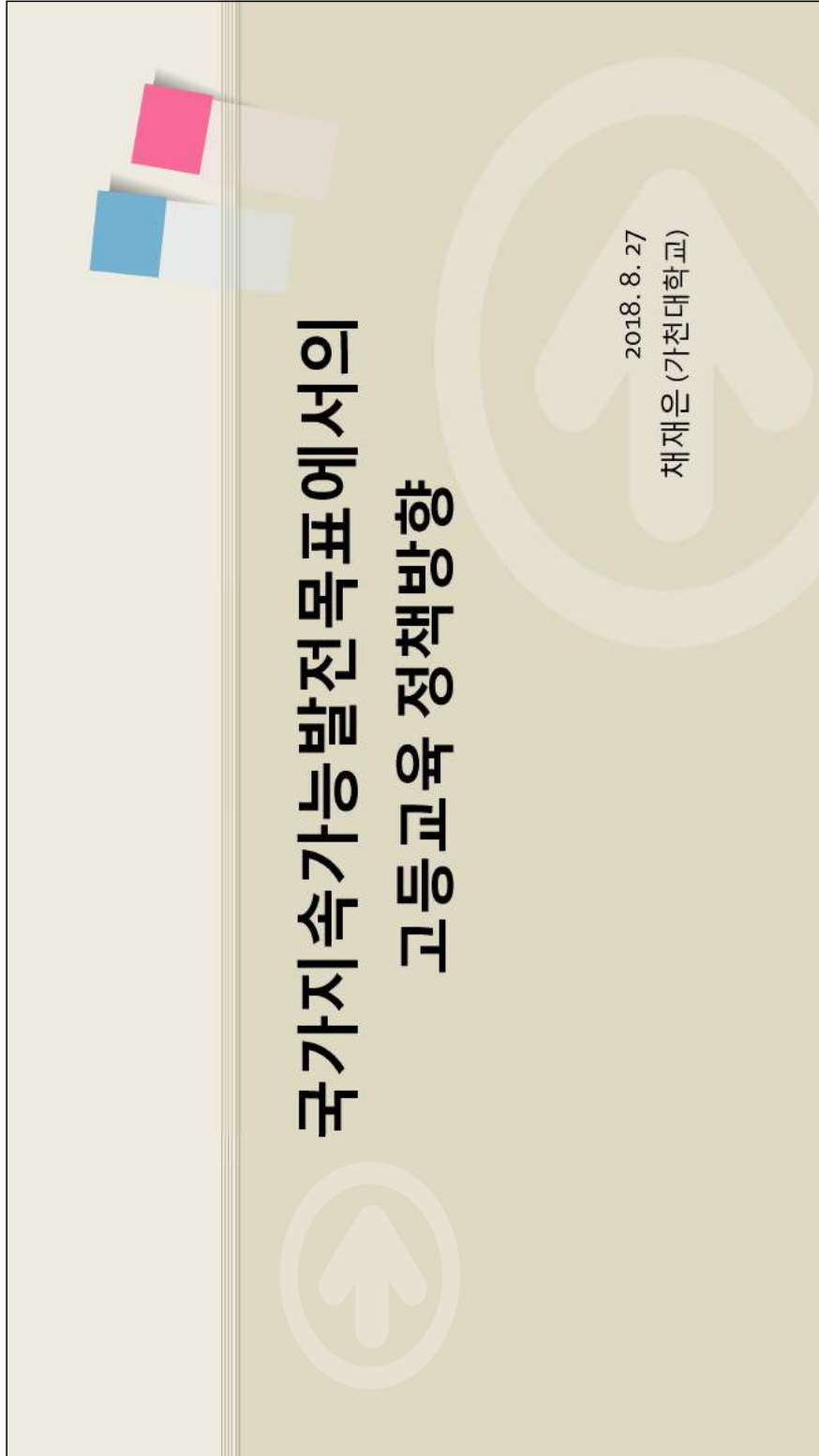
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에서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

채재은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duNEXT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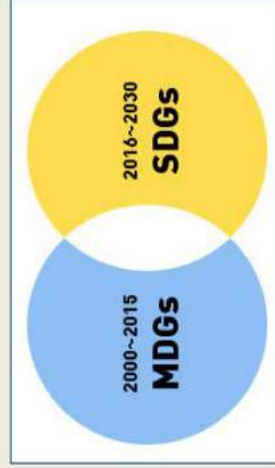


목 차

- 01 SDGs의 추진배경
- 02 SDGs와 교육
- 03 고등교육의 현황 및 이슈
- 04 향후 고등교육 정책 방향

01 SDGs의 추진배경

- ▶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DGs)**는 2016~2030년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 목표임
- ▶ 2015.9월 유엔개발정상회의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할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합의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채택함



01 SDGs의 추진배경

- ▶ 구성 : SDGs 경제,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의 3차원의 균형을 맞추는 "17개 SDGs,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됨
- ▶ 17개 목표 : ①가난 ②식량 ③보건 ④교육 ⑤성평등 ⑥물 ⑦에너지 ⑧경제성장 ⑨인프라 ⑩불평등 ⑪도시 ⑫소비,생산 ⑬기후변화 ⑭해양 ⑮생태계 ⑯평화,제도 ⑰이행수단

구분	MDGs (2001~2015)	SDGs (2016~2030)
구성	8개 목표 + 21개 세부목표	17개 목표 + 169개 세부목표
대상	개도국	(보편성) 개도국 중심이나, 선진국도 대상
분야	빈곤· 의료 등 사회 분야 중심	(변혁성) 경제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 사회· 환경 통합 고려
참여	정부 중심	(포용성)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자료: 알기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보고서 - KOICA

02 SDGs와 교육

- ▶ 교육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실현의 핵심요소로서, 기타 SDGs(건강과 웰빙, 성평등,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기후변화와 대응)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 담당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초·중·등
교육
4.1

유아교육
·보육
4.2

중등이후/
고등교육
4.3

청소년/
성인교육
4.4

취약계층
교육
4.5

성인기초
교육
4.6

세계시민
교육
4.7

02 SDGs와 교육

세부
목표
4.1

초·중·등
교육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 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세부
목표
4.2

유아교육
·보육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 이들이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
목표
4.3

중등이후
/고등교육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비용으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세부
목표
4.4

청소년/
성인교육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하는 **적절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4 / 21

02 SDGs와 교육

세부
목표
4-5

취약계층
교육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양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
목표
4-6

성인기초
교육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한다

세부
목표
4-7

세계시민
교육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한다

5 / 21

02 SDGs와 교육

구분	새천년개발목표 2	모두를 위한 교육 (EFA)	지속가능발전목표 4 (SDG4)
범위	초등교육 [아동]	기초교육 [아동, 청년, 성인]	기초교육; 기초교육 이후 교육/훈련; 평생학습관점
지리적 대상	저소득국가 분쟁영향권 국가	의도는 보편적이거나 실제로는 저소득국가에 초점을 맞춤	소득 수준/발전 상황에 관계 없이 모든 국가를 위한 보편적 의제
정책 초점	모두를 위한 기초교육 접근 및 이수	모두를 위한 양질의 기초교육에 대한 접근	모두를 위한 양질의 기초교육 접근; + 기초교육 이후 교육-훈련에 대한 공평한 접근; + 노동과 "세계시민성" 을 위한 학습의 적절성

자료: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7). 문답으로 풀어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4-교육 2030

03 고등교육의 현황 및 이슈

세부
목표
4-3

중등이후
/고등교육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비용으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 UNESCO는 지표 4.3의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글로벌 지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고등교육 총 취학률
 - 직업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비율(15-24세)
 - 최근 12개월 내 형식·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소년/성인의 성비
- ▶ 유네스코 통계원(UIS)이 운영하는 'SDG4-교육 2030 지표 관련 전문가 협력단'에서 회원국, 파트너 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최종 주제별 지표안을 확정할 예정
- ▶ 한국 정부도 3개 지표를 중심으로 실태를 모니터링하되, 자체적으로 추가할 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7 / 21

03 고등교육의 현황 및 이슈

- ▶ 한국의 경우 고등교육 총 취학률이 약 70%에 달하기 때문에 UNESCO가 제안한 4.3의 글로벌 지표(고등교육 총 취학률)의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 그러나 SDGs 2030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SDG 4.3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함
- ▶ 따라서 세부 목표 4.3를 UNESCO가 제안한 수준(고등교육 총 취학률)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즉, 글로벌 SDG 4.3과 한국정부의 SDG 4.3(KSDG 4.3)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① **고등교육 기회의 보장**(양성평등 포함) : 글로벌 SDG 4.3
 - ② **고등교육의 질 제고** : KSDG 4.3
 - ③ **고등교육의 사회적 성과 향상** : KSDG 4.3

8 / 21

03 고등교육의 현황 및 이슈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비용으로
양질의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01.
고등교육 기회 보장

02.
고등교육의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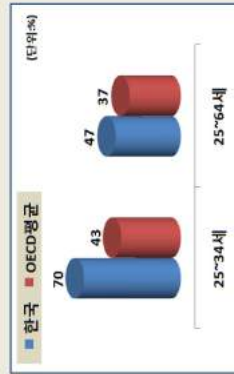
03.
사회적 성과 제고

9 / 21

03 고등교육의 현황 및 이슈

01. 고등교육 기회 보장

- ▶ 의미 : 성별, 인종, 지역 등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고등교육 기회 보장
- ▶ 현황
 - 고등교육 취학률은 2008년 70.5%에서 2017년 67.6%로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편임
 -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 : 70%로 2008년 이후 OECD 최고 수준 유지
 - 남녀 비율 : 대학 진학을 면에서 여성이 남성 보다 다소 높은 편임



고등교육 이수율 현황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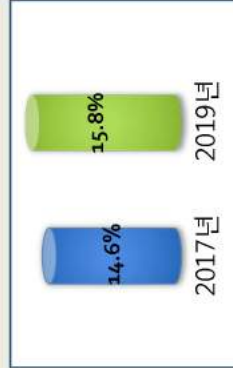
대학 진학률 (2000년, 2017년)

03 고등교육의 현황 및 이슈

01. 고등교육 기회 보장

- ▶ **정책** : 교육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입 전형 확대
 -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 중에 고른기회 특별전형, 지역인재 특별전형 인원 확대
- * **고른기회전형** :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졸업자, 특성화고 등 졸업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5도 학생, 만학도, 지역인재

[고른기회 특별전형 모집인원]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



자료: 대교협(2018). 2019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 발표

03 고등교육의 현황 및 이슈

01. 고등교육 기회 보장

- ▶ 정책 : 국가장학금 확대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 형평성 개선
 - 2012년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 도입 이후,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받는 학생'이 재학생 수 대비 '12년 3%에서 '18년 28%로 증가



자료: 교육부(2018).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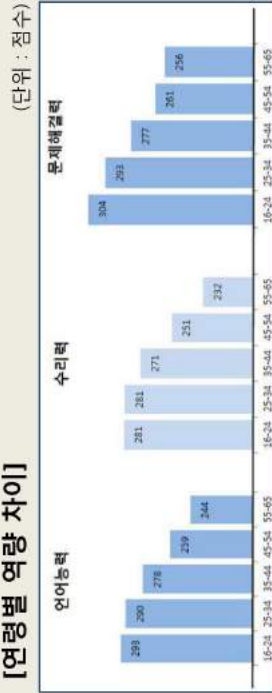
03 고등교육의 현황 및 이슈

01. 고등교육 기회 보장

▶ 주요 이슈

- ① 세대간 고등교육 이수율 격차(2016년)
 -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 이나, 25-64의 이수율은 47%임
- ② 세대별 역량 격차가 상당히 큰 편임
 - 2012년 OECD PIACC(국제성인역량 조사)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역량이 낮은 편임

[연령별 역량 차이]



03 고등교육의 현황 및 이슈

01. 고등교육 기회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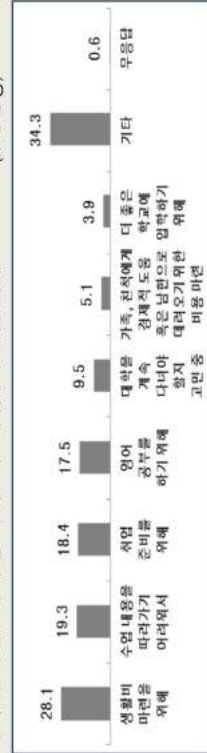
▶ 주요 이슈

③ 신소외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대학 진학률, 중도탈락률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2015년 대학진학률: 전체 학생은 68%인데, 다문화가정 학생은 49.3%에 불과함)
- 북한이탈학생의 경우 진학률은 높은 편이나, 학업지속률이 낮은 편임

[북한이탈 대학생의 휴학 이유(복수응답)]

(n=349명)



자료: 남북하나재단(2016),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03 고등교육의 현황 및 이슈

02. 고등교육의 질 향상

- ▶ 의미 :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고등교육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 제공”으로 정의할 수 있음
- ▶ 현황
 - 세계 유래 없는 단기간의 압축적인 성장을 달성했으나, 질적 수준은 간과됨
 -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구분	2016	2017	2018
한국 순위	55	53	49
대상 국가수	61	63	63

- 취업포탈 잡코리아 조사 ('16.1월): 신입사원에 대한 직장 선배 만족도 : 65점/100점
- * 불만족한 부분: 지나친 개인주의 19.7%, 수동적 업무자세 19.5%, 인내심 부족 16.0%, 업무능력부족 11.3%

03 고등교육의 현황 및 이슈

02. 고등교육의 질 향상

▶ 정책 : 2000년대부터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확대 중임

목적	2001년 (김대중 정부)	2007년 (노무현 정부)	2012년 (이명박 정부)	2016년 (박근혜 정부)
연구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BK21 (1,851억/438개단) 대학 다양화 특성화 지원 (630억/33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BK (2,810억/569개단) 수도권NURI (600억/80개교) 지방대NURI (2,594억/131개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단계 BK (2,031억/500개단) 수도권교육역량강화 (670억/85개교) 지방대학교육역량강화 (1,241억/62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BK21 플러스 (2,725억/545개단) 수도권CK(542억/79개단) 지방대CK(1,925억/258개단)
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대학 다양화 특성화 지원 (800억/90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대학 특성화 (1,680억/100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2,340억/70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CE (600억/25개교) PRIME(2,012억/21개교) CORE (600억/19개교) 평생교육혁신대학(300억/9개교) We-Up(50억/10개교) SCK(2,972억/83개교)
신학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학협력중심대학 (300억/23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C (1,800억/81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C(2,240억/57개교) LINC전문대(195억/30개교)

자료: 교육부(2018).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

03 고등교육의 현황 및 이슈

02. 고등교육의 질 향상

▶ 주요 이슈

① 고등교육의 질 의미 및 측정 방법의 모호성

- 고등교육 질(quality)의 의미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합의가 부족함
- 그러나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취업률'이 핵심지표로서 활용되는 문제가 있음
- 최근 대학생핵심역량 평가(K-CESA) 등이 활용되나, 보편적 고등교육 질 측정도구로서 보기 어려움

② 대학간, 지역간 고등교육의 질 편차 해소

- 대학재정여건의 차이, 대학 서열화 등으로 인한 대학간, 지역간 고등교육 편차 존재
-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에서 주로 비수도권 대학의 평가결과가 낮게 나타남

03 고등교육의 현황 및 이슈

03- 사회적 성과 개선

▶ 의미

- 고등교육의 사회적 성과란 노동시장에 적합한 고등교육 인력을 양성하는 정도를 의미함
- OECD 등에서 학력별 상대임금수준, 또는 고용률 등으로 평가함

▶ 현황

- 25~64세의 학력별 상대 임금(고졸자=100 기준, '15년) 격차는 OECD 평균 보다 작음

구분	중학교 이하	전문대학	대학 이상	대학원(석박사)
한국 (OECD 평균)	72 (78)	115 (122)	145 (146)	190 (198)

- 성인(25~64세)의 고용률은 OECD 평균(75%)보다 다소 낮은 편임

구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전체 교육단계
한국 (OECD 평균)	72 (74)	77 (81)	77 (83)	74 (75)

03 고등교육의 현황 및 이슈

03- 사회적 성과 개선

▶ 정책

- 대학과 노동시장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학특성화 사업[CK 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LINC+ 사업], 일학습병행제, 장기현장실습제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주요 이슈

- 취업률은 대학교육만이 아니라 개인의 목표/특성, 노동시장 상황 등에 달려 있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주요 성과로 보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학교육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성과 측정 방법 개발이 필요함

19 / 21

04 향후 고등교육정책 방향

① 고등교육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에 대응하여 고등 수준의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성인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필요
- 이를 위해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 입학전형 확대, 성인친화적인 학사 개편, 학생서비스 혁신 외에도 고등평생학습 장학금 지원 필요

② 신소외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 신소외계층(다문화가정, 탈북 학생 등)을 위한 대학특별전형 확대
- 대학생활 및 학습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장학금 지원 강화

20 / 21

04 향후 고등교육정책 방향

③ 고등교육 격차 해소

- 정책 대상으로서의 “고등교육 질”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또는 지수 개발
- 고등교육 격차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토대로,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 필요

④ 고등교육의 사회적 적합성 제고

- 취업 및 노동시장 성과는 대학생, 대학, 노동시장이 모두 연계된 문제로서 대학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
- 교육과정의 현장성 제고, 현장실습 등 실무체험 기회,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필요

21 / 21



지정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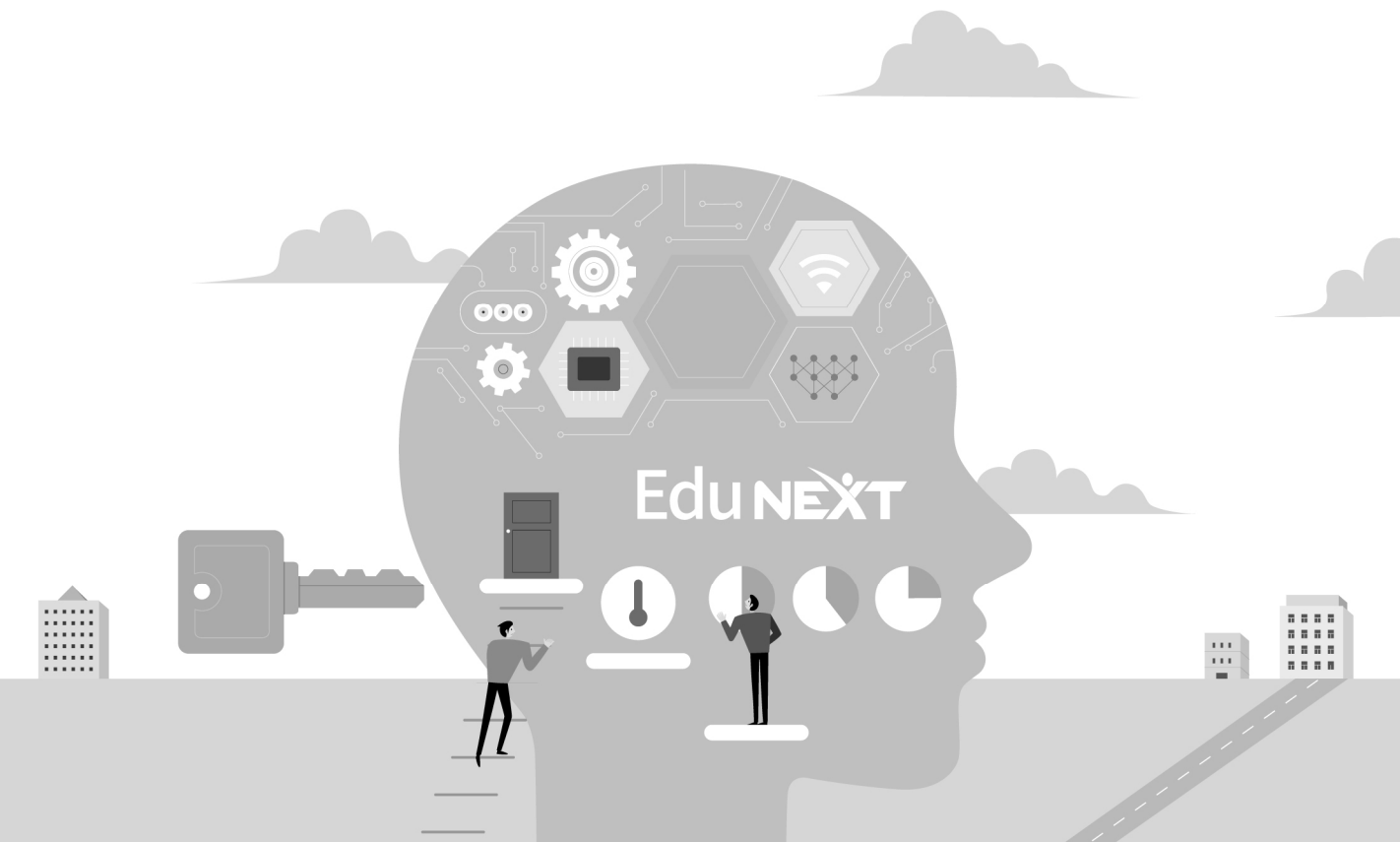
좌 장 권선국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토론 1 김승환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토론 2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토론 3 최익제 (서울대학교 외교학전공 석사과정)

토론 4 이해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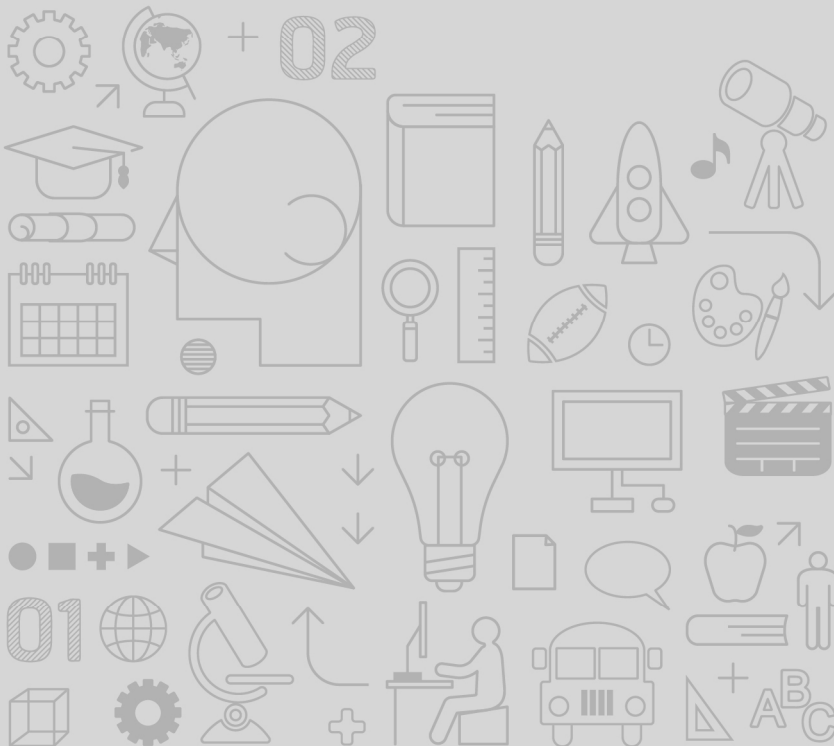


지정토론 1

김승환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EduNEXT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 방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 방안 토론문

김승환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미래는 더욱 불확실하고, 비예측적이며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의 시점이 현실로 닥쳐올 때.. 이를 헤쳐나갈 학생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초연결 초지능”으로 대표되는 지능정보의 시대. 기하급수적인 생산성의 변화가 새로운 혁명을 낳고 있습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화두를 던졌고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4차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 혁명적 변화는 비트(bit)로 대표된 가상세계와 원자(atom)으로 대표되는 물리세계의 대응함으로 촉발됩니다. 대규모 데이터,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력 등의 초연결 초지능 융합이 산업의 주요경쟁력이자 새로운 플랫폼과 시장의 창출로 이어집니다.

“4차산업혁명”은 후일 역사적인 평가를 받겠지만, 산업 뿐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영역에 광범위하고 빠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및 ICT의 가속화된 발전에 따라 우리 사회도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다시 창의사회로 더욱 빠르게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역할, 방법론 및 저변도 크게 확장되고, 새로운 시대에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지금보다 개개인의 창의성의 발현이 산업, 경제,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때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오늘이 있기 까지 과학기술과 함께 교육의 힘도 매우 큼니다. 오바마도 칭찬했던 우리나라 교육의 힘... “국민들의 뜨거운 교육열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성취도, 교육기회의 평등은 세계 수많은 나라의 모범”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 수학 과학 분야의 성취율, 그리고 ICT 소양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도 아직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세칭 과도한 교육열, 이로 인한 입시위주 교육 등 교육현장은 여러 모로 왜곡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관심은 대학 입학에 쏠려 있고, 대학진학 후에도 학생들은 단순 지식 및 스킬 습득, 그리고 취

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변화무쌍한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대학에서 “21세기 핵심 역량”의 함양이 필요합니다.

다보스포럼의 또 하나의 화두는 “일자리의 미래”였습니다. 인공지능 (AI)과 다른 첨단 기술들이 융복합되며 무인 디지털화와 초고속반응 및 연산이 가능해지며 단순 반복적인 업무 등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살아남으려면 미래인재는 대체불가인 창의적이며 높은 수준의 문제해결력을 가져야만 하며, 교육도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진로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유연한 대처와 적응력이 필요하며 미래 직업 및 고용구조의 패러다임은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일자리가 사라지는 가운데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창작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기하급수적 변화의 시대에 맞물려 초고령사회에 초고속으로 진입하고 있어 대학 졸업이후 평생교육에 대한 새로운 도전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한편 저출산 시대에 학령인구의 격감으로 대학구조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맞물려 다양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재편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학 평가는 대학 구조조정을 넘어 대학 자기진단 및 전략 수립 도움, 수요자에게 정확한 대학 정보제공, 대학간 선의의 경쟁 촉매라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조치로 인한 대학기능의 왜곡, 획일적 평가를 통한 대학 서열화 조장, 평가와 연계한 재정 지원 압박 등 타율적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현장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You get what you measure!”

지난 밀레니움에 전 세계적으로 수 많은 대학들이 각기 다른 미션으로 설립되어,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해오고 있습니다. 대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사, 설립 미션, 캠퍼스, 학부/대학원, 도서관 등 시설 인프라, 입학생 수준, 평가 순위, 저명한 동문, 국제교류, 사회적 영향력, 대중적 인지도 등등 다면적인 요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대학은 다양한 구성원 - 교원, 학생, 연구원, 직원 등 - 이 캠퍼스에 모여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차 복합 다양화 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으로도 캠퍼스가 확장하고 대학과 사회가 더욱 밀접하게 연계되며, 특히 기업 연구원/임원의 캠퍼스행과 학생/연구원 등의 창업 벤처 진출 등 고등교육을 구성하는 인적자원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국이후 설립된 많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들이 산업화 시대와 경제 성장기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이끌었고,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이공계 특화대학들은 과감한 투자와 특화 전략으로 단숨에 세계적 수준에 근접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대학들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와 경쟁 및 협업을 수행하며 각자 고유한 미션을 어떻게 자율적이며 중장기적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을지, 이를 위해 국가 사회적

으로 어떻게 지원체제의 틀을 가져갈 지 고등교육의 미래에 대한 큰 틀의 고민과 합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고등교육에서도 “선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뽑은 학생들을 대학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양성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기하급수적 변화와 디지털화 시대에 맞춰 대학에서 교육의 방법론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전달 보다, 어떻게 스스로 학습하느냐를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기초소양교육의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어떻게 사회의 생산적인 일원이 되는 법, 팀으로서 함께 협업하는 법, 소통하는 기술, 윤리의식,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함께 터득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의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과 함께 컴퓨터적 사고역량 및 인문학적 소양도 함께 길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OECD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아직 발명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며, 아직 문제여부도 가늠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래 인재들이 다양한 창의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는 격동기를 맞고 있습니다. 신북방 및 신남방협력 뿐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등이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권의 협력은 경제 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번영을 이끌어온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소프트파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은 고등교육의 미래를 담보할 좋은 기회로 활용해나갔으면 합니다.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거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교육, 연구와 다양한 지적 경험을 통해 미래의 삶을 개척하는 곳”입니다. 변화의 시대 - 대학커뮤니티는 대학의 가치와 역할 변화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캠퍼스를 교육혁신 공동체이자 기초에서 미래 혁신을 망라하는 융합 플랫폼으로 전환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은 현재 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초중등 교육, 사회와의 연계 및 공공성의 강화에 대한 책무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은 초중등 공교육의 정상화에도 책임있게 기여하며, 창직과 사회적 문제의 해결 뿐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SDG 등 글로벌 아젠더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한편 대학들이 새로운 길을 선도하는 혁신가들의 요람이자 “미래혁신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대학에 대한 규제를 개혁하고, 입시의 자율성을 더 많이 보장해주는 한편, 대학 특성에 맞는 질적 역량 평가의 확산과 고등교육 재정 투자의 적극적인 확대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지정토론 2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EduNEXT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 방안



MEMO

지정토론 3

최익제 서울대학교 외교학전공 석사과정

EduNEXT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 방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 방안 토론문

최익제 (서울대학교 외교학전공 석사과정)

첫 번째 발표(임철일)가 대학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미래 고등교육의 비전들을 제시한다면, 두 번째 발표(채재은)는 “지속가능한발전종합목표”(SDGs)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합의에서 출발해서 거시적인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을 개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시해주신 미래사회 고등교육의 비전과 정책방향은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발표에서 나왔던 ‘고등교육의 평생교육기능 강화’와 ‘정책대상으로서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정의와 지표 개발’에 대해서 먼저 차례대로 이야기하자면 현재 많은 대학이 ‘고등교육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차원에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잘 몰랐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에도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이제 거리에서 길을 걷다보면 평생교육원 학생을 모집하는 광고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주변에서 평생교육원 같은 교육기관을 통해 공부하시는 30~40대나 부모님 세대 분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식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평생교육 또는 평생공부가 불가피한 추세라고 느끼게 됩니다. 다만 지난달 언론에서 평생교육원이 불법유학의 통로로 악용되었다는 보도 내용이나 몇몇 기사들을 생각하면,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잘 정비하고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평생교육에 대한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수요에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존 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시스템에서 어떤 형태와 구조로 평생교육기능을 담아갈 수 있을지 실질적인 고민과 해안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볼 때 글로벌 시대에 해외대학들과의 학문적 성과를 경쟁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평생교육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높은 우선순위로 다루는 게 힘든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일반 단과대학의 학사과정에서 성인학습자들을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제도적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한, 지금처럼 평생교육원 같은 부속시설 차원에서만 평생교육과정이 운영된다면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정쩡한 결합을 유지하기보다는 평생교육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종합대학 외에 다른 고등교육 공간을 강화하는 편이 낫다고 생

각합니다.

이어서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정의와 지표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학 간 경쟁과 고등교육발전에서 대학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주체에 따라 평가항목도 다르고 평가기준도 다릅니다. 하지만 유명 대학평가 기관에서 발표하는 순위가 각 대학의 평판과 직결되다보니 대학들도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부생이었던 시절에 봤던 대학평가 중에서 세부 항목으로 국내 대학별 중앙도서관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그 때 제가 있었던 대학이 중앙도서관에 책이나 자료는 많은데 그로 인해 오히려 학생 1인당 학습실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아서 해당 부문에서 조금 순위가 낮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예전부터 지적되던 사항이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도서관 신축이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평가가 있고서 몇 달 뒤부터 학교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중앙도서관 신축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더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해서 금방 완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차원에서도 대학생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에서 대학구조조정을 위해 자체적인 지표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미래사회 고등교육을 위한 적절한 지표설정과 평가만 가능하다면 별도로 국가재정투입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대학이 스스로 보유자원을 고등교육의 질을 발전시키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평가의 주체가 반드시 국가일 필요는 없지만, 고등교육의 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요구된다는 면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국가가 앞장서서 논의를 주도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대학 내 다양한 구성원들(특히 실제로 고등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립대학이든 국립대학이든 학내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껍데기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들은 실제로 그 효과를 체감하는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학평가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지표개발 과정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첫 번째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도출했던 미래사회 고등교육의 비전과 청사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양 교과목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졸업한 자유전공학부는 2009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

데 당시 기초교양을 강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다양한 교양수업을 수강하도록 했지만, 각 범주체계에 따라 학점 이수조건만 존재할 뿐 이수과정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관리체계가 부실해서 사실상 졸업 전 이수 학점수만 채우면 되는 상황이라 실효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도교수님의 학생관리가 상당 부분 형식적으로만 존재한 탓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발표에서 분류한 것처럼 효과성이 높고 단기적으로 실천하기 용이한 축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빠른 개선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학문과 사회, 학생의 관심을 반영한 전공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표에서 효과성은 높지만 실제 단기간에 실행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 부분인데, 제 자유전공학부 시절의 비슷한 경험을 토대로 학생 입장에서 어떤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자유로운 전공선택 및 이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학생마다 개별화된 전공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설계전공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공설계’라는 수업이 존재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개별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고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자신만의 맞춤형 전공을 설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특화된 수업의 체계 내에서도 개별 학생들에 대한 멘토십은 굉장히 제한된 형태로밖에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교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한 명씩 만나고 관계를 이어가기엔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서 바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마다 환경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재학하고 있을 당시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에는 교수님들의 숫자에 비해서 학생이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 학년에 입학생이 150명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신의 학제적인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만드는 데 성공하는 경우는 전체 재학생 중에서 10% 미만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학제적 연구를 저해하는 분야 간의 폐쇄적인 학사운영 구조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전공을 개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학교 전체적으로 단과대학 별로 전공별로 폐쇄적인 구조가 유지되는 상황 하에서 학생들의 학제적인 관심사를 충족할 수 있는 학제적인 수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따라서 내가 만드는 커리큘럼에 들어갈 수업도 기존에 존재하는 분과학문 간의 칸막이 속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커리큘럼상의 과목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학제적 수업을 만드는 건 학생들에게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학생설계전공으로 시작했던 국제개발협력학 전공이 KOICA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원해줘서 학부에서 수업도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반적인 파급력은 미미했다고 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맞춤형 커리큘럼을 만들더라도 내가 관심을 지닌 학제적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실 수 있는 교수님은 항상 부족하고, 학생 개인이 노력하더라도 그 과정을 지원해주실 수 있는 학내 제도적 기반이 약하면 발전과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설계전공이 만들어지더라도 학문적 발전까지 가는 건 상당부분 학생 개인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엄격한 관리와 지도를 해주실 수 있는 교수님과 학교의 제도적 지원을 함께 제공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현장학습이나 해외현장학습 같은 수업은 굳이 교내 수업을 수강하지 않더라도 외부 기관의 인턴이나 현장활동 등을 커리큘럼의 일부로 인정하는 제도였지만 학교 차원에서는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어떠한 지원이 없었고 전적으로 학생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제도였습니다.

즉 학생의 관심을 반영한 전공과정의 맞춤형 개발과 운영은 단기간에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학부에서 학제적 연구를 포괄하는 세미나 수업의 비중을 높여가고, 학생 주도의 프로젝트와 연구수행을 위한 일종의 자율연구 같은 제도들을 활성화하고, 현장학습의 기회를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 중간 단계로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의 주체성을 보장하되 그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교수의 멘토십을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 1:1 매칭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수와 학생이 강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학생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의 충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토론 4

이해속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

EduNEXT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 방안



MEMO

SP 2018-11-337

EduNEXT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 방안

2018년 8월 27일 발행

발 행 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53-803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셋길 606
대성디폴리스 A-23층
홈페이지: <http://kcue.or.kr>
전화: 02-6919-3800

인 쇄 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C) 한국대학교육협의회<비매품>

* 이 책자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ISBN: 979-11-6004-397-6

EduNEXT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 혁신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가산동, 대성디폴리스 A동, 22~23층)
Tel. 02-6919-3800 Homepage. <http://www.kcue.or.kr>

비매출/무료

93370



9 791160 043976

ISBN 979-11-6004-397-6